

### 제3회 원목자 연수



6월 21일부터 22일 까지 부산 성 분도 은혜의 집에서 모두 27개 기관 57명의 원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원목자 연수가 있었다.

이번 연수에서 원목분과위원장 이재돈 신부는 병원 원목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안했다. 현재 가톨릭계 병원의 원목자 양성에 있어서 사전 교육과 지속 교육의 부재와 전문성의 취약함을 들어 국내 가톨릭계 원목자들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 교육제도 확립, 그리고 조직 활성화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2012년도를 1차년도로 하여 기초 이론 교육과정 개발과 신규 원목자 위주의 실습 과정을 개발하고,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등에 이러한 과정을 병설하여 개설함으로 전문적인 이론 교육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몽골 이비인후과 의사 한국 초청 연수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해외의료봉사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몽골 다르항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 보건시스템 구축-연계병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몽골 다르항 제 1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몽흐바타르

(MUNKHBAATAR MOONON, 남, 41세)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9주간 본 협회 회원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담당 박시내 부교수)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갔으며, 연수목적은 ▲몽골 현지 의사에게 의료 지식 및 기술 전수 ▲몽골 다르항 지역 의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몽골 다르항 지역 정부와의 협력 강화 ▲국가 및 한국가톨릭의료협회, 가톨릭 중앙의료원 이미지 제고를 위함이다.

## NEWS 직능단체

### 응급(사후)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에 동참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응급(사후)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재분류 안은 향후 공청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 협회 직능단체인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한국가톨릭약사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에 적극 동참하였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동성명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응급피임약은 여성과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낙태약이기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재분류 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생명위원회를 비롯한 기관단체들은 식약청이 발표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분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생명운동본부가 6월 7일 발표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 1. 응급피임약은 반 생명적인 낙태약입니다.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은 성관계로 수정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반착상' 기능을 가진 일종의 '화학적 낙태약'입니다. 즉, 수정된 난자가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인간생명인 배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에서도 “응급피임약을 배포하고 처방하고 복용하는 행위는 낙태시술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악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약청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2. 응급피임약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낙태를 줄이지 못합니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응급피임약

의 접근성을 높여야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피임이란 이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지가 포함되어있기에 피임의 실패가 곧바로 낙태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가톨릭교회는 '피임이 만연한 곳에 낙태도 만연한다'고 가르칩니다.

미국에서도 1992년 응급피임약의 사용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그 기대효과로 낙태율이 50% 줄어들 것으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998년~2006년 사이에 보고된 23개의 연구결과는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도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나 낙태 비율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오히려 성문란을 조장하여 낙태와 성병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성과 정결에 대한 가치관이 확산되는 생명문화의 정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응급피임약은 여성의 건강을 해칩니다.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보다 호르몬 투여를 10-30배 증가시키기에 1회 복용만으로도, 심한 복통과 두통, 출혈과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각한 경우 영구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이런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응급피임약의 소비 역시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응급피임약이 62억원 어치나 팔려 지난 4년 동안 무려 71%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응급피임약의 확산은 크게 증가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4. 응급피임약은 특히 젊은 여성과 청소년에게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첫 성경험 연령은 13.6세로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임신한 10대 청소년은 2010년에 2,5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7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문화가 개방되었음에도 건전한 성과 정결, 윤리와 생명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 교육은 부재한 것이 염려할만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성문란을 조장하고, 책임감 없이 성관계를 행하는 청소년들이 응급피임약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그러므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응급피임약 문제는 단순히 약리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 의료적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서 다루어야 마땅한 인간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기에 우리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생명을 존중하는 선의의 모든 기

관단체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계획을 전면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건전한 생명문화와 성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응급피임약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기관들은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의 장을 확대하고, 올바른 생명가치관과 윤리도덕을 전달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3. 모든 피임약을 생산, 제조, 처방 및 판매하는 취급자들은 경제적 이득에 앞서 먼저 생명의 존엄성과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윤리와 건강을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6일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한국가톨릭약사회



NEWS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한국가톨릭의사협회지(vol.34) 발행



예년의 틀을 벗고 새 단장을 한 한국가톨릭의사협회지 34호가 3월에 제작되어 전국의 회원들에게 배부되었다. 1년에 1회 발행되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지는 전국교구 가톨릭의사들의 진솔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다.

제44차 정기총회 및 피정 실시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조건현 교수)가 주최하고 부산교구 가톨릭의사회(회장 김호균, 메리놀병원장)가 주관하는 제44차 정기총회 및 피정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지난 3월 24일~25일, 1박 2일로 부산 '성 분도 은혜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8개 교구에서 총 116명(서울 15명, 대구 10명, 광주 2명, 대전 8명, 부산 54명, 청주 8명, 인천 13명, 수원 6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가톨릭의사협회 담당사제인 이동의 신부와 부산 교구 가톨릭의사회 지도신부인 노영찬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개회미사가 있었으며, 부산교구 보좌 주교인 손삼석 주교의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피정 강의, 그리고 친교의 밤에서 각 교구별로 마련한 즐거움과 웃음 및 민정식 형제의 명 사회,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찬바람 속에 걸린 ‘십자가의 길’, 부산교구장이신 황철수 주교의 집전으로 감사의 파견미사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도 사업보고와 2012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토의사항으로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 대한 현행 분담금을 올릴 필요가 있음(대구 박정환 교수) ▲협회 재정 확충을 위해 각 교구 가톨릭의사회의 분담금 인상을 고려해야 함(서울 강준기 원장) ▲참석 못하는 교구 가톨릭의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총회/피정을 이러한 교구 가톨릭의사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아시아가톨릭의사협회(AFCMA) 총회 및 학술대회가 2012년 10월 18일~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됨을 공지했으며, 항상 부활 2주전 사순 시기에 실시되는 총회 및 피정은 2013년에는 인천교구 가톨릭의사회가 주관한다.

## NEWS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배티순교성지순례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채계순 수녀)는 4월 29일 일요일, 협회 임원 및 자문위원단 23명(중앙이사, 감사 15명, 자문위원단 6명, 그 외 2명)이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에 위치한 배티순교성지를 순례하였다.

아침 7시 50분 서울 성모병원을 출발하여 9시 20분 경(1시간 30분 소요) 배티

성지에 도착하였다. ‘십자가의 길’을 하고 성모님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새로 지은 성당에서 김용렬 신부 집전의 미사를 봉헌하였다. 멋진 장백의에 맞갈스런 강론과 성지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배티순교성지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이어 ‘제2차 중앙이사회’를 하였다. 양업전시관, 양업교회사연구소, 옛 신학교와 성당터를 둘러보았다. 좋은 날씨에 우리를 성지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 제3차 간호영성포럼 개최

6월 9일 토요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원 1002호에서 전국 8개 교구 가톨릭간호사 회원 140여 명이 참석하여 제3차 간호영성 포럼을 실시하였다.

아름다운 영상기도로 시작하였으며 ▲아름다운 치유의 소명(이향만 교수) ▲치유의 웃음(성동효 강사) ▲치유하시는 하느님(최혜영 수녀)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이향만 교수는 강의에서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따르면



탄생에서 죽음까지 간호사가 동반하고 있다. 간호사는 태어나는 아기에게 가장 먼저 축복하고,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명복을 빌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치료가 의사의 몫이라면 치유는 간호사의 몫이다. 치료는 행위에서 시작되나 치유는 말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최혜영 수녀는 “영성은 ‘자신이 타인과 자연, 그리고 신성한 힘과 맺고 있는 관계’, ‘주님이 늘 곁에 계심을 느끼고, 그분의 눈길을 의식하고 함께 사는 것’.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영성을 가졌으며 진정한 그리스도교 영성은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고 늘 깨어 사는 것”이라고 했다.

임상에서 근무하며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병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떻게 환자들을 간호해야 할지 목표의식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아울러 간호직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으며, 간호사로서 소명과 직업 의식에 대한 재인식의 시간이 되었다.

### 전국 가톨릭간호대학생 피정



7월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가톨릭간호대학생 27명(남학생 6명, 여학생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 정

동 소재)에서 피정을 실시하였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요한 15,11)의 주제로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손 마리수산나 수녀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인사를 비롯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는 자기 긍정, 고해성사, 성경 통독 및 기도, 묵상, 필사, 나눔 등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협회장 채계순 수녀는 “이번 피정을 통해 말씀의 씨앗이 타오르는 불꽃으로 열매를 맺었다면, 분명 사그라지는 것 같은 아픔

을 겪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피정에 참가한 학생들은 “고된 마음을 성경 구절 구절을 통해 새롭게 준비하고 반성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다면 성경 속에서 하느님을 찾아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신앙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다.”라고 했으며,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중앙 임원들과 경북대학교 교수의 참석도 있었다.

가톨릭 간호사로서의 소양과 정체성을 미리 심어주는 계기로 마련하고 있는 이 피정은 2002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7월 6일 저녁 7시엔 ‘제3차 중앙이사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 NEWS 한국가톨릭약사회

### 전국교구 임원 모임

한국가톨릭약사회(회장 이강추)는 6월 17일 11시, 서울 합정동 꾸르실로 회관 및 절두산 성지에서 이재열 야고보 지도신부(서울성모병원 영성부원장)를 모시고 전국교구 임원 모임을 하였다.

서울대교구 및 전국교구 가톨릭약사회, 공직약사협의회, 교수협의회, 병원약사협의회, 제약약사협의회(가칭)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하여, 제약약사협의회 창립 및 각 교구 가톨릭약사회와 협의회 현황 및 계획 설명과 하반기 성지순례 및 정기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